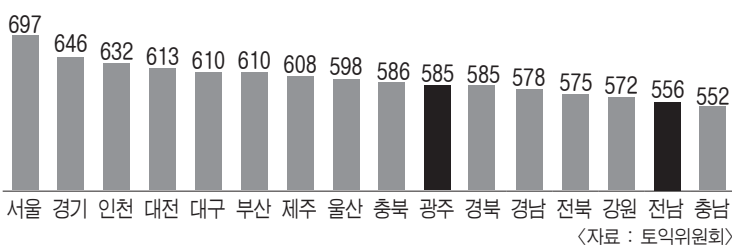


사회

광주·전남 대학생 토익성적 하위권

16개 시도 중 광주 10·전남 15위 우수 인재 유출 영향... 대책 시급

■ 전국 지역별 대학생 토익 평균 성적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의 토익(TOEIC) 평균점수가 전국 평균(626점)을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전국 16개 시·도 평균성적 순위에서 중하위권인 10위를 기록해 광역시 가운데서는 꼴찌였으며, 전남은 15위로 사실상 최하위에 머물렀다.

27일 한국토익위원회 뉴스레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토익 정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중 대학생 45만2354명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광주와 전남의 평균점수는 각각 585점, 556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인 626점에 비해 각각 6.5%, 11.1% 뒤쳐진 점수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와 전남의 평균성적 순위는 각각 10위, 15위였으나, 광주는 5대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중 최하위에 그쳤다.

전남의 평균점수는 도 단위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한 경기도에 비해 90점, 광주는 같은 광역시에서 1위를 차지한 대전에 비해 28점 뒤졌다.

전국적으로 서울지역 평균점수가 69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646점), 인천(632점), 대전(613점) 순이었다. 충남(552점)이 가장 낮았다.

광주는 서울지역 평균점수와 비교하면 112점, 전남은 141점이나 뒤처졌다.

이 같이 저조한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의 어학 실력은 학업 성취를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취업시에도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광주지역 대학의 관계자는 “한국 교육의 특성상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서울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지방대생들의 토익 점수는 낮을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광주·전남은 다른 지방에 비해서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정확한 진단과 대책별 자체 방

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토익위원회 관계자는 “지방대학의 성적이 낮은 것은 토익강의·시험정보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 대해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편, 같은 기간 취업준비생 20만8265명을 분석한 결과도 서울의 평균점수가 706점으로 다른 시·도보다 월등히 높았고, 구별로는 서초구(754점)가 가장 높았다. 광주(594점)와 전남(563점)은 서울과 비교해 각각 112점, 143점 낮았다.

목포대 약대 유치 비자금 조성 前 총장 등 3명 입건

‘목포대 약대 유치 비자금 의혹’ <본보 4월20일자 6면>을 수사중인 경찰이 목포대 전 총장 등 3명이 약학대 유치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적발했다.

전남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27일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목포대 임모(61) 전 총장과 이모(47) 교수, 직원 심모(49·6급제) 등 3명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전 총장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약대 신설을 신청한 뒤 이 교수와 심씨에게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와 심씨는 지난해 11~12월 기성회비를 교직원에게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35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 교수 등은 임 전 총장의 지시로 조성한 비자금을 술값이나 경조사비 등으로 썼으며, 횡령액 일부는 약학대 유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국책사업 연구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부풀려 1억2500만원을 횡령한 목포대 김모(49) 교수를 횡령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임 전 총장 등과 함께 약대 유치 로비에 가담했던 이 교수는 2년간 국토해양부 발주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1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2월 말 2011학년도 약대 신설 및 정원 배정 심사에서 전국 32개 신청 대학 가운데 목포대와 순천대 등 전국 15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



무등산 마삭줄 군락 무더기로 훼손됐다

조경용으로 옮겨간 듯 관리소 “땃돼지 소행”

무등산 등산로 일대에 자생하던 ‘마삭줄’이 송두리째 뽑혀 나간 채 발견됐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27일 광주시 동구 운림동 무등산 등산로를 현장 답사 확인한 결과 총의사 입구~바람재간 1.8km 등산로 옆길 10여곳이 마구잡이로 파헤쳐져 있었다.

훼손된 곳은 ‘마삭줄’로 불리는 정원조경에 쓰이는 지피식물(地被植物, 지표를 낮게 뒤덮는 식물)이 자생하던 장소로, 마삭줄을 캐내기 위해 호미로 판 듯 크고 작은 구멍이 있었다.

넓게는 4㎡, 좁게는 1㎡ 크기의 구멍이 들은 최근 마삭줄의 무단체 취가 이뤄진 듯 흙이 채 마르지 않은 상태였다. 이 흔적은 바람재에서 그치지 않고 문빈정사 관백나무숲으로 내려오는 등산로까지 무려 열

군데가 넘게 이어져 있었다.

현장을 답사한 무등산 공원관리사무소 측은 ‘땃돼지의 소행인 것 같다’고 추정했다.

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늘(27일) 확인결과, 마삭줄 군락 주변에서 땃돼지 발자국이 보이는 데다 파헤쳐진 땅 주변에 동글레 뿌리 등 땃돼지가 먹을만한 것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십년 동안 무등산을 올랐다는 등산객 채모(52)씨는 “산비탈이 아닌 등산로 바로 옆의 마삭줄 군락이 파헤쳐져 있고, 훼손지역이 등산로 주변이라는 점으로 미뤄 땃돼지의 소행이라는 주장이 근거가 약하다”며 “누군가 마삭줄을 옮겨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삭줄은 정원 식재용 녹화식물로, 잔디의 대체식물로서 그 활용도가 높다.



26일 무등산 총의사 입구~바람재간 1.8km 등산로 일대 마삭줄 군락지가 심각하게 훼손돼 방치돼 있다.

고교생이 폭행 사주 서부경찰, 2명 입건

광주서부경찰은 27일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에게 동급생을 폭행해 달라고 부탁한 광주 모 고등학교 3년 김모(18)군을 폭행 교사 혐의로, 부탁을 받고 주먹을 휘두른 박모(17)군을 폭행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야구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박군에게 같은 학교

동급생 장모(18)군을 폭행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군은 김군의 부탁을 받은 뒤 지난 25일 오후 6시10분께 광주시 서구 용암동 한마트 앞에서 30cm길이의 막대기로 장군의 얼굴을 때리고,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군은 자신의 협탄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후배 김군에게 동급생인 장군을 폭행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순천시의회, 노관규 시장 고소

시장 질의 불출석 이유 노시장 측 “사유서 냈다”

순천시의회가 ‘정례회 시장 질의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관규 순천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순천시의회는 27일 “지난 13일 정례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노 시장에 대해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153회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기 위해 노 시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노 시장은 회의 당일 공문을 통해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시장의 행동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단체장은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가 요구할시 출석·답변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시장 측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에는 ‘의회 불출석의 경우 사유를 개회 전에 고지하도록 돼있어 개회 25분 전에 불참 사유서를 보낸 만큼 위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노 시장과 별도로 정례회 개회식장에서 시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시민들에 대해서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순천지청에 고소했다.

한약사 면허증 뒤늦게 교부 피해

非 한약학과 졸업생에 국가 배상

순천대생 9명 7억6천만원

한약학과 졸업생만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의 적용 시기가 잘못된 탓에 시험에 합격하고도 자격을 뒤늦게 인정받은 비(非)한약학과 졸업생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순천대 한약자원학과를 졸업한 김모씨 등 8명이 “한약사면허증을 뒤늦게 교부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총 7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에 지원해 합격자 등록까지 마친 후 ‘한약학과 졸업’이란 새로운 응시자격 요건을 정한 개정 시행령이 입법에 고착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 전 입학한 원고들에게 이를 적용해 응시원서 점수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거부 처분이 없었다면 합격 연도에 따라 2004년 2월 또는 2005년 2월에 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국가는 소송이 계속 중이란 이유로 미루다 패소가 확정된 2007년 12월에 서야 교부했다”며 “김씨 등 7명은 45개월 22일 동안, 이 모씨는 33개월 15일 동안 1년 미만 경력의 한약사가 일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한약자원학과

신한은행 전산 장애 일부 업무 3시간 마비

서울에 본점을 둔 한 시중은행이 전산 장애로 일부 업무가 마비됐다.

27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광주를 비롯한 전국 930여개 지점 일부 창구에서 약 3시간 동안 내부 전산 시스템 접속이 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은행을 찾은 고객들이 한꺼번에 전산 시스템 접속이 가능한 창구로 몰리면서 업무 처리 시간이 길어지는 등 한때 불편을 겪었다.

신한은행의 이날 전산 장애는 접속 불량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정확한 접속 장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산망 접속 라인 중 일부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

영권 여관주인 술취한 투숙객 ‘더듬’

○...술에 취한 20대 여성이 객실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들어가 몸을 더듬은 60대 숙박업소 주인이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권모(69)씨는 27일 새벽 4시에 광주시 동구 불로동 자신이 운영하는 모 여관 2층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김모(여·23)씨의 신체부위를 더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

○...경찰조사 결과 권씨는 술에 취한 김씨가 남자친구와 함께 들어온 뒤 남자친구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권씨는 “여자 혼자 위험한 것 같아 들어갔고, 여자가 땀띠를 하자 이를 멈추게 하기 위해 가슴 부위를 토닥였을 뿐”이라고 진술.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7·9급 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교행직/ 농업직/ 기술직/ 소방직/ 교정직

호남최대 7·9급 공무원시험전문학원 — 개강 1차 10월 1일 2차 10월 4일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34-0234 직영학원 김영면입학원 227-8088